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자성 사건  
불법파견 컨설팅 · 분쟁 증가  
비정규직 차별금지 관심 증가**

”

박상훈 변호사와 함께 오태환, 박찬근, 김영민, 박종철, 홍성 변호사 등이 노동팀을 구성하고 있다.

울촌 노동팀엔 조상욱, 박재우, 최진수, 정대원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또 판사 출신의 최동렬, 문일봉 변호사와 조규석 변호사, 검사 출신의 이시원 변호사 등이 소송사건에서 노동팀 변호사들과 협업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변호사 중예선 이수정, Christopher Mandel이 외국계 회사 등을 상대로 문화와 법률의 차이에서 오는 간격을 메워 고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울촌, 우리銀 통상임금 소송 승소**

울촌은 우리은행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하나은행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며,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소송을 수행 중에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통신업체 L사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대응하고, 자동차업체, 백화점, 유통업체 등의 불법파견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울촌은 한샘의 인사노무 프로젝트에서 성희롱으로 촉발된 근로감독에 대응하고, 인사 시스템 전반을 법적으로 체계화하는 자문을 제공했다.

광장 노동팀은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회식자리가 끝난 후 직장상사가 인턴사원인 여직원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에 데리고 간 후 성추행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현대홈쇼핑 사건 등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고, 정기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조로부터 고소당한 갑을오토택을 변호해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이상훈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노동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진창수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아 노동팀을 이끌고 있으며, 검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인 태지영 변호사, 송현석 변호사 등 20명이 넘는 변호사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

국내 로펌 중 가장 큰 규모의 인사·노무 전문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김앤장은 제약, 자동차, 화학, IT, 금융 등 해당 산업에 특성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각 나라별 전문변호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팀을 통해 자문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전문성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통상임금 소송 등의 수행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프로젝트, 파견/도급 리스크 감소 프로젝트 수행 등을 올해 업무수행 사례로 제시했다.

김원정, 주완, 김기영, 최승욱, 이제호, 홍준호, 박정택, 정종철, 권순하 변호사 등이 유명하다.

**국제중재**

올해만큼 국제중재 분야에서 뉴스가 많았던 해도 드물 것이다. 지난 7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Elliott Associates)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를 시작으로 9월 메이슨 캐피탈(Mason Capital Management)의 ISD, 그리고 가장 최근인 10월에 제기된 쉐들러 엘리베이터의 ISD까지 지난 8월 미국 국적의 개인이 제기한 ISD를 포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모두 4건의 투자자중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ISD 등 국제중재 사건을 따내기 위한 선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국 로펌들도 예외가 아니다.

**올 들어 ISD 4건 제기**

쉐들러 케이스의 경우 김앤장과 미국 로펌 퀸 이매뉴엘(Quinn Emmanuel)이 쉐들러 측을 대리하는 가운데 정부



측 대리인엔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가 선임되어 2대 2의 대리인 선정이 마무리되었다. 엘리엇과 메이슨 사건에선 2012년에 제기되어 조판간 판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진 론스타 사건에서 론스타 측 대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국제중재 부티크' 법무법인 KL 파트너스가 투자자인 엘리엇과 메이슨을 대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측은 두 사건 모두 법무법인 광장에 대응을 맡겼다. 메이슨 측에 지문하는 외국 로펌은 Latham & Watkins, 한국 정부 측엔 또 화이트 앤 케이스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엘리엇 사건은 Three Crowns와 코브레 앤 김(Kobre & Kim)이 KL 파트너스와 함께 엘리엇을 대리하고 있으며, Freshfields가 광장과 함께 한국 정부 측에 지문한다.

ISD 사건의 대리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태평양과 김앤장, 광장, KL 파트너스가 국제중재 사건에서 먼저 선택을 받으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설문조사에서도 태평양, 김앤장, 광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율촌, 세종, 화우가 그 뒤를 이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KL 파트너스의 비약적인 발전이 최근 한국 국제중재 시장의 빅뉴스 중 하나로, 3년 전 김범수, 이은영 변호사와 김준민 미국변호사 등 세종의 국제중재 트리오가 주축이 되어 출범한 KL 파트너스가 외국계 펀드 등의 대리인으로 단연 선택을 받고 있다.

### 외국 로펌과 경쟁 또는 협력

변호사들은 주요 국제중재 사건에서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 사이의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로펌이 구두변론 등 제한적인 범위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영국 법정변호사(QC 등)와 협업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기업 인수합병, 국제거래, 합작계약 등에서 비롯되는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며 국제중재 분야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ISD와 함께 해외건설이나 조선, 특수해양설비(offshore plant) 분쟁에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해외건설 국제중재 증가

김갑유 변호사의 지휘 아래 방준필 미국변호사와 김홍중, 김준우, 윤석준 변호사, 외국변호사인 매튜 크리스텐슨과 데이비드 맥아더 등이 포진한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 모씨의 해외 은닉 부동산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아 이씨가 숨긴 해외 부동산의 처분권을 저축은행 측에 넘기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에이스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70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이씨가 그 중 일부를 횡령하여 미국

### 2018년 제기 주요 투자자중재 대리인 현황

사건명	신청인 측 대리인	한국 정부 대리인
엘리엇 케이스	Three Crowns, <b>법무법인 KL 파트너스</b> , Kobre & Kim	법무법인 광장, Freshfields
메이슨 케이스	Latham & Watkins, <b>법무법인 KL 파트너스</b>	법무법인 광장, White & Case
선들러 케이스	Quinn Emanuel,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White & Case



“  
**ISD와 함께 해외건설이나  
 조선, offshore plant 분쟁 관련  
 국제중재 사건도 계속해서 증가**  
 ”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 내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미국 현지 투자회사 등의 명의로 구입한 사건인데, 태평양은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이씨 개인과 현지 투자회사 등을 상대로 사기, 법인격부인 등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에 대한 분쟁계류 등록 (Lis Pendens)을 하여 합의서 작성, 부동산 매각을 위한 현지 입찰, 처분 및 대금 회수,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까지 일련의 긴 과정을 최근 완료하였다”고 설명했다.

국제중재 전문매체인 GAR(Global Arbitration Review)이 선정하는 세계 30대 로펌(GAR 30) 중 24위에 랭크되는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가에서도 줄곧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윤병철, 박은영 변호사가 투입으로 지휘하는 가운데 60여명의 전문가 진용을 자랑한다.

**김앤장, ‘GAR 24위’ 평가**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국제중재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윤, 박 두 변호사와 함께 한국변호사로는 오동석, 임병우, 이철원 변호사가 팀 내에서 분화된 해외건설·조선분쟁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김혜성, 윤세중 변호사 등 차세대 변호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앤장은 책임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의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여 제한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ICC 중재와 중국에 소재한 합작법인의 부채정리 및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공사와 중국 회사와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재에서 승소한 것을 올해의 대표적인 업무

국제중재	
Band 1	광장, 김앤장, 태평양
Band 2	세중, 울촌, 지평, <b>KL 파트너스</b> , 화우

사례로 소개했다. 또 “외국 건설회사와 건설 보증을 인수한 한국 보험회사 사이의 국제중재 사건에서, 한국 법원으로부터 중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중립 국적의 의상중재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받아냈다”며 “건설 보험 관련 임의중재(ad-hoc)에서 한국법에 따라 중재인을 선임한 선례가 된 경우”라고 강조했다.

임성우 변호사와 로버트 왓터(Robert Wächter)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광장 국제중재팀은 최근 1년 사이에만 30여건의 신건을 수임하는 등 올해가 가장 바쁘게 보낸 한 해라고 소개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ISD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초대형 ISD 사건들 외에도 해외건설, M&A, 헬스케어, IP, 에너지, 보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제분쟁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적으로 최근 사건의 30% 이상이 중동 및 인도 지역 건설분쟁이며, 소프트웨어, 웹게임 및 모바일 게임 관련 IP 분쟁과 바이오신약 라이선스 관련 헬스케어 분쟁 등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광장, 중동 등 건설분쟁 30% 이상**

광장은 사건 증가와 함께 꾸준히 이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국제중재 분야에서 뉴스를 타고 있다. 김앤장 출신의 주현수 변호사와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론스타, 하노칼 등 사건에서 투자자 쪽에 자문한 데이비드 김(David Kim) 캐나다 변호사와 한상훈 변호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하노칼, 다니니 등 주요 ISD 사건의 실무를 담당했던 임아영 변호사 등이 최근에 광장에 합류한 국제중재 멤버들이다.

올초도 올해 백운재 변호사가 합류하는 등 국제중재 쪽이 대폭 강화되었다. 백 변호사와 함께 판사 경력의 김세연 변호사, 미국계, 영국계 로펌에서 건설부문 중재 변호사로 활동한 Andrew White 외국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어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투자협정 협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이형근 변호사와 안정혜, 안태준 변호사와 현대건설 해외 법무실 등에서 경험을 쌓은 박기정 영국변호사 등이 함께 포진하고 있다.

올초는 세계 최대의 기업용 ERP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가 국내 공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